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존중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름 부르기’, ‘방한용품 나눔’ 등 일상 속 실천으로 노동 존중 문화 확산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는 4월 17일(금)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이창곤), 전태일재단(이사장 박승흡)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만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 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 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4월 27일(월)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지급해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 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도 함께 알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권교육 내실화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상 속 실천을 넘어, 근본적인 권익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던 이주노동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지원, 근무환경, 산업안전 등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출발점은 그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에 있다”라며, “노동권익재단과 함께하는 일상 속 실천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노동 존중 사회’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노동권익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 보호·지원체계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 2. 업무협약서
- 3. 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노대윤 (044-202-7739) 김혜정 (044-202-7738)



붙임 1**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 '26. 4. 17.(금), 10:00~10:40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관, 4개 노동권익재단* 이사장 등

*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 (주요내용)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

* 협약 주요내용: 이주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위해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 운동, △겨울작업복·방한용품 나눔 △식사환경 개선 등 추진

□ 세부 일정

※ 협약식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10('10)	• 인사 말씀 (장관→노동권익재단 이사장)		
10:10~10:13('3)	• 업무협약 주요내용 소개	사회자	공개
10:13~10:18 ('5)	• 서명식 및 기념 촬영	참석자	
10:18~10:40 ('22)	• 간담회		비공개

* 사회자 :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서

고용노동부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및 전태일재단 (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이주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여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보유한 행정 역량, 자원, 현장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업】 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1.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예: ○○님, ○○씨)” 실천 운동의 기획 및 추진
2.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및 노동권익 보호 캠페인 연계 추진
3. 겨울철 옥외작업 종사자를 위한 작업복·방한용품 나눔 및 지원사업 추진
4. 이주노동자 식사 환경 개선(예: 포크 지급 등) 및 메뉴 다국어 안내 지원사업
5. 그밖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하여 협약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고용노동부의 역할】 고용노동부는 본 협약의 목적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협력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정책 연계를 추진한다.
2.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 참여 확대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한다.
3.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 홍보에 협조한다.

제4조 【4개 노동권익재단의 역할】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및 전태일재단은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의 기획, 자원 연계, 운영 및 확산에 협력한다.
2. 전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노동권익센터,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지역 기반의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3.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예: ○○님, ○○씨)” 실천 운동, 겨울철 작업복 나눔, 식사환경 개선 등 구체적 협력사업의 발굴 및 실행을 추진한다.
4. 캠페인 및 홍보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노동자 존중 문화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에 힘쓴다.
5.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①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체는 협력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필요시 관계기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별 역할 분담 및 추진상황 점검
 - 2. 참여기관 확대, 지역 연계 및 홍보방안 마련
 - 3. 그밖에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경비 및 지원】 본 협약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물품 및 기타 지원사항은 각 기관의 예산과 여건의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효력 및 협의】

- ①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 ③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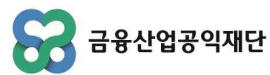
2026년 4월 17일



장관 김영훈



이사장 노광표



이사장 주 완

사무금융 **우부투**재단

이사장 이창곤

진태일재단

이사장 박승흡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에 함께해 주신
공공상생연대기금 노광표 이사장님,
금융산업공익재단 주 완 이사장님,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창곤 이사장님,
전태일재단 박승흡 이사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다시 생각하고,
노동현장에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약속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없어서는 안 될 동료이자 이웃입니다.

그럼에도,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지게차 괴롭힘 사례,
최근에 있었던 에어컨 상해 사례와 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우리의 이웃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왜곡된 인식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인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거기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네 개 노동권익재단이 뜻을 모아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겨울철 작업복 지원,
식사 환경 개선과 같은 일상에서의 실천에
나서주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 협약의 첫 현장실천으로 오는 4월 27일에는 울산에서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나누어 주는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나눔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실천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늘의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권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사각지대 없는 체류지원이 가능하도록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